

유학에서 나타나는 심성구조 및 특성

A specific character and structure of human nature in Confucian

박영목**†

Yeong-Mog Park*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Craft & Design Dept.,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With its history of two thousand years of studying the human mind, Confucianism may be applied to contemporary emotional science for its unique perspectives and methodologies in understanding the origin of the human mind. By examining the Confucian understanding of human mind according to general Confucian ideas as well as the scholar, LEE Whang's, an idea similar to contemporary 'emotion' in Confucianism was discovered. Importance of the sentiment was not in the resulting goodness originating from one's fundamental nature, but rather its goodness was only achieved when human nature manifested itself without any distortion. This good emotion, namely 'sensibility', presents the essential difference Confucian understanding bears in comparison to the contemporary concept. And the system for grasping the human mind was considered to be the viewpoint of examining the contents and subject of function than a formal system of functioning human mind. It assumes the stance of looking into the human mind from the general and synthetic view of contemporary cognitive, emotional, biolog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Overall, the research concludes that there existed a long history of high-level research into the human mind in Confucianism that may satisfactorily provide partial reference and understanding as well as consequent perspectives and knowledge for discovering the common denominator with the emotional science.

Key words · Structure of human nature, Confucian, Study of human mind.

요약 : 유학은 인간의 심성(心性)에 대한 탐구를 2,000여 년에 걸쳐 해온 학문분야이다. 따라서 유학에서의 인간의 심성에 대한 관점과 연구방법은 현대의 감성과학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학에서의 인간심성을 유학의 전반적 개념과 퇴계 이황의 개념으로 고찰하여본 결과 현대의 감성과 유사한 정(情)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며, 본 마음(性)의 발로의 결과인 정(情)의 좋음과 나쁨의 관점은 정(情)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좋은 정과 나쁜 정으로 구분된다고 하여 정(情)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왜곡됨 없이 발현된 정(情)이 좋은 정, 즉 감성이라 하고 있어 현대의 감성의 호약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심성을 파악하는 구조는 심성작용이 일어나는 형식구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성의 내용과 작용주체를 파악하기 위한 관점으로 파악

† 교신저자 박영목(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E-mail parkym@snu.ac.kr

TEL 02-880-9231, 011-742-2485

FAX 02-888-2513

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인지, 감정, 생리, 철학 등의 관점이 총체적·종합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심성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종합결론으로서는 유학에서도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가 매우 오랜 기간 수준 높게 진행되었으며, 현재 감성과학에 부분적인 참고와 도움뿐만이 아니라 감성과학의 지향점을 찾는 데 중요한 관점과 지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심성구조, 유학, 심학(心學)

1. 서론

1.1 연구배경

1990년 초반부터 대두된 감성연구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리고 감성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의하여 시작된다. 인간의 감성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인간이 가지는 감성과 자극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인간의 감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모든 질문은 궁극적으로 ‘감성이란 무엇인가’의 규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 감성 자체가 규명되어야 그것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감성의 메커니즘이 규명되어야 ‘자극의 입력과 감성의 표현’(출력)이라는 상관관계로부터 감성의 처리를 막연히 예측하던 단계에서 ‘자극의 입력-감성의 처리-감성의 출력’이라는 완전한 시스템으로써 연구가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감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감정, 감각, 감정 등과 같은 유사 심성작용과 비교하여 감성의 성격과 특성 및 영역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며, 인간 감성의 생성 변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은 ‘감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구별하여 감성에 접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 의한 연구결론이 나왔더라도 각 접근방법이 서로 다른 관점 및 연구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연구라면 관점을 조정하여 통합하거나 동일한 연구방법으로 서로 설명될 수 있을 때까지의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동일한 관

점과 방법에 의하여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 전통사상 중 하나인 유학의 관점으로 인간의 감성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 근거한다. 첫 번째로 유학에서 ‘감성’에 완전히 부합하는 개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인간의 ‘마음(心)’을 지난 2,000여 년간 다루어온 체계로 본다면 틀림없이 현재의 ‘감성’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관점이나 지식을 얻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유학에서는 인간의 심성작용을 총체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영화에 대하여 사이좋게 이야기하던 도중에 갑자기 뺨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내 뺨을 때릴까?’하는 의구심과 ‘뺨이 아프다’하는 통증과 ‘왜 때리는 거야?’하면서 분노가 치밀 것이다. 즉, 이 상황은 인지적, 감성적, 생체적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며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감성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생체적 작용과 함께하는 것이며 상호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 생체작용을 구분하고 각 작용에 대하여 따로 분석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을 총체적 인간의 심(心)으로 다루고, 물리 및 생체적 속성을 신(身)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이 심과 신을 총체적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학의

근원이 되는 음양오행사상이나 태극사상은 개체에 대하여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의 상호영향, 음양의 순환, 음양의 균형 등의 총체적·종합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인간의 인지, 감성 작용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제시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세 번째로는 유학 및 전통사상의 지식체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유학이나 전통사상의 체계는 일반 과학의 체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논리적, 객관적, 과학적이지 못하다. 공자왈(孔子曰)하면 ‘그러려니’ 혹은 ‘맞는 말이겠지’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 맞아 맞아’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안 지식’은 말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그러나 ‘안다’에 3가지의 종류가 있어 말을 안다(言得), 마음으로 느낀다(心得), 몸으로 느낀다(體得)가 있고 이 3가지를 모두 아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심득과 체득을 중시하는 한국인에게는 오히려 감성을 알기 쉽게 접근 시켜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전통사상인 유교를 중심으로 마음(心)의 구조와 특성을 고찰하여 현재 감성연구에 적용 가능한 관점과 가능성의 발견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유교라 하여도 한반도에 유입되어 2,0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시대에 따라 사상도 변천하여가므로 이 모든 사상에 대하여 통시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그 사상의 본질을 이해하려 하면 상당히 심도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본 연구에서는 유학의 단편적인 면밖에 고찰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고찰과 질문에 의하여 유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감성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고찰 1. 유학은 무엇인가?

질문 1. 감성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어떻게 작

용하는가?

— 유학에서의 심성구조

질문 2. 감성은 무엇인가? 좋은 감성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 유학에서의 감성

질문 3. 현재의 감성공학과 유학에서의 마음(心)연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유학의 개념이 현대 감성공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는가?

— 연구결론

3. 유학이란

3.1 전통사상으로서의 유학

유학(儒學)을 때로는 유교(儒教)라고도 하여 종교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으나, 유학 혹은 유교는 유(儒, 선비)의 학문(學) 혹은 가르침(敎)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교의 발전 및 기원은 “크게 공자(孔子, B.C. 552~B.C. 479)·맹자(孟子, B.C. 372~B.C. 289?)의 선진유학, 한·당의 훈고학, 송대의 성리학과 그 분파인 명말의 양명학, 청대의 고증학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서삼경의 유교는 송대 성리학이고, 원시사회인 은대(殷代)의 주술점복에서 농경사회인 주대(周代: 춘추전국시대)의 군장정치로 발달하면서 성립된 유교는 선진유교라 한다.”[2]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근원을 공자에 두고 있다.

공자가 탄생한 시기는 춘추전국시대라써 혼란해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유열국(周遊列國)하면서 그의 사상을 정치가들이나 위정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풍우란(6)은 공자를 최초의 전문교육자로 칭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시대의 상황에서 발생한 사상이기 때문에 수신(修

6) 풍우란(馮友蘭), “공자는 중국최초로 학술을 민중화했고, 교육을 직업으로 삼았던 교수노유(教授老儒)였고, 전국시대의 강학과 유세의 풍습을 열었으며, 중국에서 농부도, 공인도, 상인도, 관료도 아닌 선비라는 계급을 창립했거나 적어도 선양발전시켰다.”[8]

身)과 대동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분히 계도적·계몽적 성향을 가진다.

유학이 한반도에 전파된 시기에 대하여는 문헌이나 고고학적 사료를 중심으로 하는 해석과 문자의 도입에 따라 사상도 자연스럽게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관점 등이 있으나 삼국시대 초 고구려를 통하여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그 이후 조선을 거쳐 현재에 까지 우리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상이다. 다음은 유학이 얼마나 오랜 기간 그리고 깊이 한국의 문화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유학은 우리민족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큰 축을 담당하였다 특히 국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통치이념과 문물제도의 강령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학이 뒤편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는 통치계급의 인물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유교 경전을 교재로 사용하였고, 관리를 임용함에 있어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선별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 따라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 배출된 인물들은 자신의 지식기반인 유학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그 시대의 사회를 이끌어가려 했을 것이며, 그 결과 우리사회는 유학의 인간관과 사회관에 깊이 뿌리를 둔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1]

이와 같이 유학은 삼국시대 이후 한국의 현대화 직전인 조선시대까지 약 2,000여 년간 한국의 문화, 정신세계, 사회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온 사상이다. 특히 1393년 조선수립으로부터 1905년 조선왕조를 마감할 때까지, 즉 한국의 현대화 직전까지 유학은 500여 년간 국가의 정치, 문화, 사회, 교육 등의 강력하고 유일한 강령으로 자리를 지켜 왔다. 현재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효의 강조, 타인에 대한 예절의 중시 등이 중요한 덕목(德目)으로 중시되고 있는 것과 같이 유학은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3.2 유학에서의 마음(心)의 세계

3.2.1 심학(心學)으로서의 유학과 도설(圖說)

마음(心)은 유학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이다. “유학은 인간의 본래적 도덕성의 회복을 궁극의 과제로 삼는 학문이다. 유학자들은 이를 위해 갖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자신을 닦아 나갔다...(중략) 마음을 닦고 다스리는 공부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은 심학(心學)이라는 이름 안에서 행해졌다.”[10]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학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선 인간의 심(心)—심(心)은 성(性)을 담은 그릇이라 생각하였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조선시대에 들어 유학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 즉, 조선시대의 유학은 주로 인간의 심과 성의 구조와 작용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의 시기였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⁷⁾ 또한 유학자들은 이 심의 구조와 역할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설(圖說)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유학에서의 도설의 도입배경과 역할을 설명하는 글이다.

“성리학 도입 초기의 유학자인 양촌(陽村) 권근(權近)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서(圖書)를 이용한 성리학 탐구는 일회적인 학문 방법으로 끝나지 않았다 16세기에 들어 만개한 조선성리학의 사단칠정론을 비롯하여 인성물성론(人性物性論), 역학(易學), 예학(禮學), 서학(西學)수용, 수양론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사용되면서, 한말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유학자들의 저서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중략)

성리학 초입단계부터 숙해야 할 주요 개념(心, 性, 情 등), 세계관, 자연관 등에 걸쳐 도서(圖書)와 도설(圖說)이 사용됨으로써, 이 도서의 연구는 조선 성리학의 특질적인 내용에 접근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다”[9]

7) 선진(先秦)시대까지는 아직 리(理)가 기(氣)의 상대적 개념으로 성립되지 못하였으며, 위진(魏晉)시대에 이르러서야 리와 기가 자연관과 인간관 또는 존재론과 가치론을 총망라하는, 철학적 사유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으로 자리잡는다 조선 유학의 리기론(理氣論)은 송대의 정이(정이)와 주희가 집대성한 리기론을 기반으로 이를 심성론(心性論)과 깊이 연관시키며 심화 발전하였다[10]

그리고 수준 높게 되었었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4. 유학에서의 심성구조

유학에서의 심성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첫 번째로는 논어(論語)와 맹자(孟子)에서 보여지는 내용을 근거로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그러나 이 논어와 맹자의 해석 또한 연구자들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기동⁸⁾의 해석과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조선성리학의 태두라 할 수 있는 퇴계 이황(退溪 李槐, 1501~1570)의 성학십도(聖學十圖)에서 보여지는 심성구조와 특징을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4.1 성(性)과 5정(情)

4.1.1 성과 정에 의한 마음의 구조

다음은 유학에서 바라보는 마음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

“공자(孔子)나 맹자(孟子)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는 육체와 마음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육체보다 마음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성(性)이므로 결국 이 성이 인간존재의 본질이란 것이다 성(性)이란, 글자의 모양이 마음(心)과 삶(生)의 결합체로서, ‘살려는 마음’ ‘살려는 의지’로 풀이 할 수 있다”^[5]

“재(才)는 사교분별자각운동 등의 마음의 기능이다 마음을 샘물에 비유한다면,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샘 아래에 있는 지하수에 해당하는 성(性)이고, 마음속에 차 있는 것은, 지하수에서 솟아나온 샘물에 해당하는, 성에서 발현된 정(情)이며, 마음의 기능인 재는, 솟아나오는 지하수를 조절하는 샘의 기능에 해당하는, 성에서 정이 발현되는 것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성은

8) 이기동(李基東)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부 교수. 논어강설, 맹자강설, 대학중용강설, 주역강설, 시경강설 등의 저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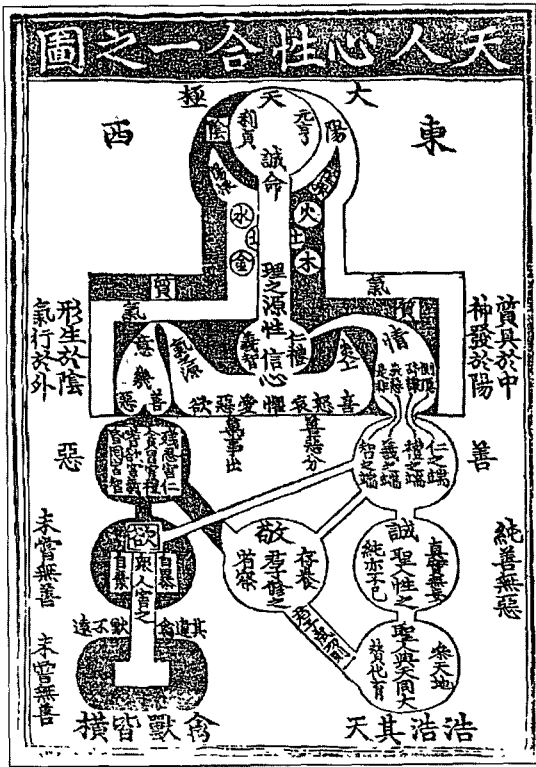


그림 1. 권근(權近)의 입학도설(入學圖說) 중, 천인심성합일지도(天人一心性合一之圖)

이러한 도설은 현재의 인지심리학 등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정보처리 모델 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 유학자들이 인간의 심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위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인간의 심성구조와 작용을 관찰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유학자들에게 있어 인간의 심성은 단순히 인간이 가진 것이 아니라 세계, 자연,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근본 원리이자 메커니즘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오랫동안 인간의 심성을 설명하는 것은 곧 인간의 존재, 인간자체의 존재의 미와 인간이 존재하는 시공을 설명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유학에서의 인간심성을 바라보는 데에는 이와 같은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복잡하고 난해한 유학의 심성론을 이해하는 데에 혹은 우리의 전통사상인 유학에서도 지금의 감성과 유사한 인간의 마음 연구가 얼마나 깊이

남과 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성에서 발휘되는 정은 남과 내가 같이 사는 방향으로 발휘되지만, 성에서 정으로 발휘되는 철이나 나 혼자만 잘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작용하게 되면, 남과 투쟁하는 방향으로 발현되어 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이 악을 하게 되는 것은 생각하는 기능 등의 마음의 기능인 재가 이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지만, 악을 하게 되는 원인을 그 재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재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만 재를 이기적으로 작용하는가 아닌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6]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마음의 구조가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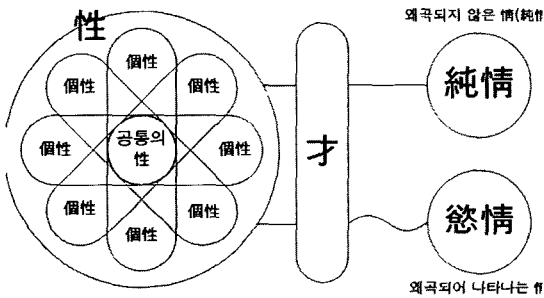


그림 2. 유학에서의 마음의 구조(성과 情)

즉,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은 살려는 의지(生+心)이며, 이 살려는 의지가 재(才)⁹⁾인 인식작용에 의하여 조정되는데, 이 성(性)이 왜곡 없이 발현된 것을 순정, 왜곡되게 발현된 것이 욕정(惡)으로 발현되는 마음의 구조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정(情)을 ‘감성’이라 한다면,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인간의 감성은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좋은 감성과 나쁜 감성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분별지각작용(才)에 의하여 좋은 감성과 나쁜 감성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4.1.2 유학에서의 감성

이러한 개념에서 본다면 ‘감성’이란 감(感 느끼다)+성(性 성을)으로 풀이되어, ‘성을 느낀다’, 즉 ‘살고자 하는 의지를 느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기동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구분하여 “자연의 이치는 태양이 비치도록 하고 사계절이 순환되도록 하는 등, 만물 전체의 삶의 조건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만물 하나하나를 낳고 기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유학에서는 ‘자연의 이치’가 갖는 이 두 측면을 구분하여, 전자를 천명이라고 하고 후자를 성이라고 한다. 천명이란 만물이 생겨나고 자라도록 명령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성이란 만물 하나하나에 주어여 있는 생성과 성장의 원동력을 ‘살려는 의지’로 파악함으로써 붙여진 이름이다.”고 했다. 이 논리로 다시 감성을 해석하면 ‘감성’이란 ‘살고자하는 의지를 느끼는 것’으로서 살고자하는 의지를 느낀다는 것은 ‘천명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며, 유학에서의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지를 뜻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좋은 감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한 현재의 감성과학이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나 대상의 개선을 해결책으로 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유학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마음의 발견과 유지함으로써 좋은 감성을 가지고자 했으며 그러기 위하여는 수신(修身)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고 볼 수 있다.

9) [3].퇴계집. 속집 원8, 18의 번역으로 “퇴계는 기가 비로소 작용하므로 그 정이 발현함에 선과 악의 다름이 없을 수 없으나, 그 단초는 매우 미약하다. 여기에 의가 마음의 발동함이 되어, 도 그 정을 끼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여, 혹은 천리의 공정함을 따르기도 하고 혹은 인욕의 사사로움을 따르기도 한다 선과 악의 구분이 이로 말미암아 결정된다. 이것이 이른바 ‘의는 선악의 기미’라는 것이다.”라고 하여 재(才)를 의(意)로 설명하고 있다

4.2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 중,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4.2.1 심통성정도에서의 심성구조

유학에서 인간의 심성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는 도

설(圖說)로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를 들 수 있다. 다음은 성학십도의 성격과 의미를 설명하는 글이다.

“성학십도(聖學十圖)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탁월한 석학 퇴계 이황(退溪 李滉)(1501~1570)의 대표작이다 퇴계는 본체론(本體論)·위학론(爲學論)·심성론(心性論)·수양론(修養論)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도학(道學) 전체 규모를 10개의 도(圖)와 설(說)로 구성하여 가장 압축적으로 발전시켰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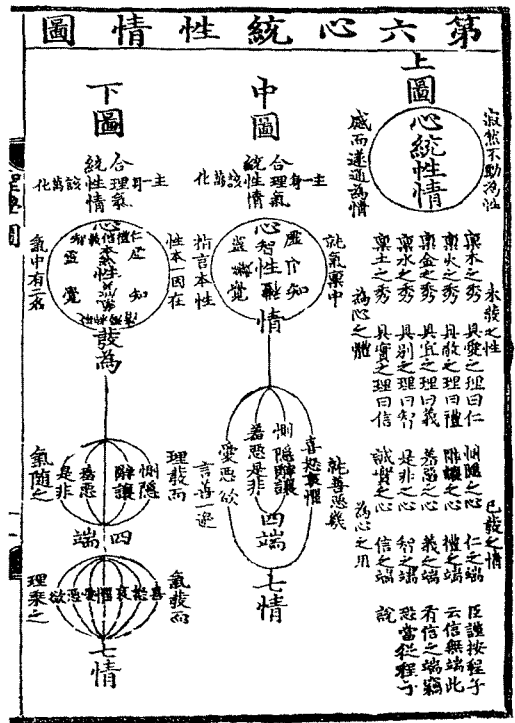
특히 도와 도설의 형식은 가장 간명한 형식으로 변화한 이론의 핵심을 제시하고 그 근원적 의미를 밝히는 방법으로 한국유학사에서 매우 중시되어 왔다 이러한 ‘도(圖)중시’의 학풍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성학십도이다”[2]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 중에서 심통성정도에 나타나는 심성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6도인 심통성정도는 퇴계의 심성론을 살펴볼 수 있는 도이며 후에 고봉 기대승(高峰 奇大升)과의 유명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이 전개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퇴계의 사상을 보여주는 도이다.

퇴계 이황은 ‘심(心)을 리(理)와 기(氣)의 결합(合理氣)이요 성정을 통섭하는 것’(統性情)이라고 정의한다[3]. 즉, 인간의 마음을 리[10]와 기[11]의 2가지 요소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 리와 기가 작용하는 구체적 심의 구조체로서 보여지는 사단과 칠정 중에 사단(四端)은 맹자[12]에

- 10) 리(理) “리는 대체로 ‘일정한 이치’ 또는 ‘일정한 이치에 따라 바로잡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으며, 변화 운동의 ‘일정함’을 가리킨다는 의미에서 ‘법칙’이라는 용어로 해석되었다 (중략) 또한 리는 그 변치않는 ‘일정성’ ‘항상성’으로 인해 만물이 궁극적으로 의존하는 논리적 또는 실질적인 근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리는 ‘법칙’과 함께 ‘원리’라는 뜻으로 풀이 할 수 있다”[10]
- 11) 기(氣) 리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의 기의 개념은 ‘원리’ ‘법칙’으로서의 리가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해 의존하거나 또는 도구로 이용되는 현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에너지’라는 용어로 풀이되기도 한다[10]
- 12) 맹자 三 公孫丑章句上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의 단서이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의 단서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단서



「心統性情圖」

그림 3. 퇴계 이황(退溪 李滉)의 성학십도(聖學十圖) 중,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서 보여지나 사단과 칠정(七情)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본 연구에서는 고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위의 단락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성(性)과 정(情)의 관계와 대응하여 사단이 성에 속하는지 아니면 성에서 발현된 것인지, 혹은 정에 속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제는 성과 정과 사단과 칠정 중에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그 중의 하나에 속하는 것인지도 연구와 이해가 부족하여 알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

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의 단서이다. 사람이 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 이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무릇 사단이 나에게 있는 것을 모두 넓혀서 채울 줄 알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며 샘물이 처음 솟아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진실로 이것을 채울 수 있다면 그로써 사해를 보호할 수 있거니와 진실로 이것을 채울 수 없다면 그 때문에 부모를 섬길 수도 없을 것이다

다.¹³⁾

단지, 심통성정도의 형식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유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리와 기, 성과 정, 4단과 7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조선시대에 유학의 핵심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첫째, 16세기 경에 이미 인간의 심성작용에 대한 연구와 고찰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심성작용의 설명을 사유(思惟)에 근거함으로써 현대의 실험심리와 같은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존재하여 보편타당하고 객관화·일반화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다른 의미로는 그만큼 다양한 사유를 존재하게 하여 심성작용의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심성연구의 목적이 인간심성을 설명하고 이해하여 응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선비 자신이 완전한 심성을 가지기 위한 사유의 결과로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이러한 심성연구가 심리학자

들에 의하여 전개된 것이 아니라 철학자이며, 위정자이고, 과학자이며, 예술가인 유학자들에 의하여 전개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유학자들은 현재의 인지심리학이나 뇌공학 등과 같은 어느 한 학술적 입장에서 인간의 심성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간으로서 인간의 심성작용을 탐구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다의적이며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예측된다.

셋째, 심성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 ‘성’과 ‘정’이라는 기본 구조와 ‘리’와 ‘기’라는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간의 심성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나’라는 형식관점보다 ‘인간의 심성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어떤 것이 작용시키는가’와 같은 의미작용의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성’과 ‘정’이라는 구조에 기반하여 심성의 특성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의 ‘성’과 ‘정’도 ‘무의식’, ‘의식’과 같은 심성작용의 작용개체로서의 영역구분이 아니라 4단이나 칠정과 같은 ‘심성내용’을 가지는 일종의 개체로서 의미영역구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설에 대한 설명 내용을 보면 리와 기라는 작용주체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적어도 심통성정도에서의 심성구조는 심성의 작용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4.2.2 심통성정도에서의 마음의 종류

심통성정도에서 보여지는 구조 요소의 의미,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고찰하지 못하였으나, 사단과 칠정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파생되는 인간의 정(情)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유학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감성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생각해 정(情)의 종류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 1) 4단과 칠정의 조합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이 정은 우선 4단×7정=28가지의 정이 된다(그림 4).

13) [3] p45에서는 “퇴계는 (중략)...마음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때(未發時)를 성(性)이라 하고, 이미 발동한 때(已發時)를 정(情)이라 하여 두 차원으로 분별되는 것은 곧 태극에서 아직 음양으로 갈라지지 않은 때(未判時)와 이미 음양으로 갈라진 때(已判時)의 두 차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밝힘으로써 ”라 하여 성과 정의 관계를 밝히고 있고, p69에서 기대승과의 기본쟁점의 설명에서는 “퇴계는 1553년. “사단은 리의 발동이요, 칠정은 기의 발동이다”라 고쳤다”라 하여 사단과 7정의 관계를 밝혔으며, p71에서는 “한걸음 더 나가서 정에 사단 칠정의 분별이 있는 것은 성에 본연·기양(氣陽)의 분별이 있는 것에 상응되는 것이라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퇴계는 사단을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本然之性)에서 발생해 나온 단서(端緒)요, 칠정을 외물(外物)이 형기(形氣)에 접촉하여 감응함으로써 ‘성품과 기질이 뒤섞여’(氣質之性) 발동하여 나오는 맥락으로 구별하여, 사단이 그 근원하는 자리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다른 것임을 주목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성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성(性) 자체는 아니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으나, 성과 정과 사단과 칠정, 재의 위치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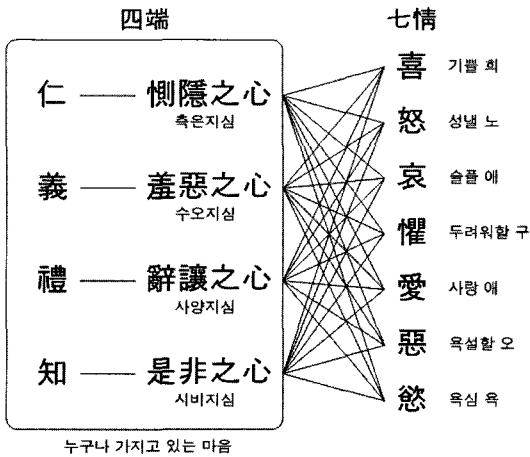


그림 4. 사단과 칠정의 상관관계

- 2) 그리고 4단과 7정 사이에 재(인식작용)가 위치한다고 가정하면, 재(才)의 작용으로 인하여 4단이 발현 중에 욕정과 순정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한다면, 순정 7가지와 욕정 7가지가 된다. 따라서 4단×(순정인 7정+욕정인 7정)=56가지의 정이 나온다.
- 3) 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은 선(善)하다고 하고 있다. 유학의 개념에는 반할 수 있으나 가정을 더하여 만일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나 교육이나 사회의 통제에 의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올바른 정이 발현된 것과 같은 정을 나타내거나 악한 본성이 그대로 욕정(惡)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림5에서와 같이 인간의 정의 종류는 (순수한 4단+악한 4단)×(순정인 7정+악정인 7정)= 112가지의 정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추출된 정(情)의 내용을 각 유형별로 한 가지씩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Case 1. 성선설에 기인한 측은지심이 순정의 로(怒)로 구현된 경우(그림 5의 ①) : 절친한 사람이 몸살이 났을 때, 그 사람을 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드나 ‘왜 추운데 돌아 다니냐’ 혹은 ‘왜 몸을 안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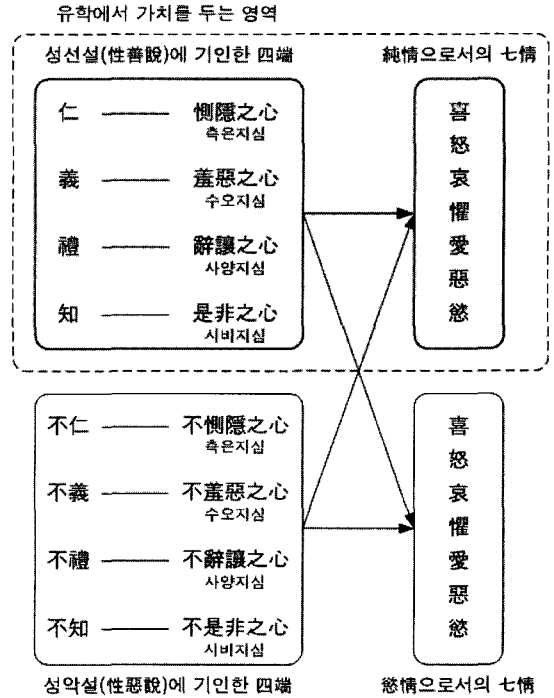


그림 5. 사단과 칠정의 모든 상관관계

보냐’는 등의 형식으로 화를 내는 경우.

Case 2. 성선설에 기인한 수오지심이 욕정의 구(懼)로 구현된 경우(그림 5의 ②) : 자신이 생각하기에 실수를 한 후에 이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Case 3. 성악설에 기인한 불사양지심이 순정의 회(喜)로 구현된 경우(그림 5의 ③) : 본시는 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나 주변의 눈치를 보고 양보한 후에 이를 마지못해 기뻐하는 마음.

Case 4. 성악설에 기인한 불시비지심이 욕정의 욕(慾)으로 구현된 경우(그림 5의 ④) :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

정통 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리한 가정을 더하여 각 유형별로 예를 들었으나, 실제로 112가지의 정의 경우가 모두 이해되거나 수궁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분석은 단지 유학에서의 4단과 7정의 관계에 의하여 인간의 정의 종류가 몇 가지로 파생시킬 수 있는가를 본 것이다.

표 1. 사단과 칠정의 모든 상관관계에 의한 정의 종류[4]

칠정	사단	성선설에 근거한 情				성악설에 근거한 情			
		측은 자심	수오 자심	사양 자심	시비 자심	불측은 자심	불수오 자심	불사양 자심	불시비 자심
순정	희	○	○	○	○	○	○	③	○
	로	①	○	○	○	○	○	○	○
	애	○	○	○	○	○	○	○	○
	구	○	○	○	○	○	○	○	○
	에	○	○	○	○	○	○	○	○
	오	○	○	○	○	○	○	○	○
	욕	○	○	○	○	○	○	○	○
육정	희	○	○	○	○	○	○	○	○
	로	○	○	○	○	○	○	○	○
	애	○	○	○	○	○	○	○	○
	구	○	②	○	○	○	○	○	○
	에	○	○	○	○	○	○	○	○
	오	○	○	○	○	○	○	○	○
	욕	○	○	○	○	○	○	○	④

5. 결론

유학에서의 심성구조 및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현재의 ‘감성’에 완전히 대응되는 개념으로서의 ‘유학의 감성’에 대한 연구라 할 수는 없으나, 인간의 심성구조와 특성, 작용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하여 굳이 새로이 규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재확인 되었다는 의미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감성에 대응 되는 개념으로 성(性)에서 발현된 정(情)이 유사하기 때문에 감성과 유학에서의 정을 대응시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5.1 유학에서의 감성

■ 유학에서의 감성(感性)의 의미

유학에서의 ‘감성’은 현재의 ‘감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유학에서의 감성은 ‘성(性)을 느낀다(感)’는 뜻으로 직역되며, 이는 ‘우주자연의 섭리를 느낀다.’ 혹은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본질을 깨닫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유학에서의 마음(心)의 탐구 의미

유학에서의 마음(心)의 연구는 인간의 연구가 아닌 인간자체와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 시간을 포함한 자연 및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였다. 인간을 자연 및 우주의 구성요소로 본 것이 아니라 자연과 우주의 법칙을 계승한 축소체로 보고 인간의 이해가 곧 자연 및 우주의 이해라는 생각에 우주의 섭리를 깨닫기 위한 방편으로 인간의 마음(心)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감성’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감각적인 만족의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연(天命)에 위배하지 않는 본연지성(本然之性)을 회복한 상태에 두고 있다.

이는 현재의 감성과학이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나 대상의 개선을 해결책으로 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인간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마음의 발견과 유지를 위한 수신론적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감성과학이 응용학문인지 기초학문인지 혹은 둘 다를 포괄하는 새로운 학문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인지를 고려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 유학에서의 감성의 종류

유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지 않고 발현된 순정(純情)은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정(감성)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좋은 정에도 기쁨과 사랑 외에 슬픔, 두려움, 분노, 미워하는 마음, 욕심이 있다. 이 슬픔, 두려움, 분노, 미움, 욕심은 부정적인 감성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으나 유학에서는 이러한 감성도 순수한 발로라면 인간이 느껴야 하는 감성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감성의 호악의 기준은 현재의 감성의 호악과는 매우 다른 기준을 가진다. 현재 ‘감성을 만족시키다’ ‘감성적으로 만족한다’는 의미는 ‘인지적 장애가 없다’ 혹은 ‘신체적 평안함이나 쾌적함을 느낀다’ ‘감각적 자극에 만족한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일견 유학은 철학이나 종교의 범주로 간주하여 철학이나 종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마음의 ‘만족’과

응용과학이 도와줄 수 있는 감성의 만족의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유학의 기능이 과거에는 철학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입신양명을 위한 교육이었으며, 국가통치의 이념이자 사회체제 설계의 기준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감성’을 다루는 학문적 입장의 다름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5.2 유학에서의 감성구조

■ 유학에서의 감성규명 체계

유학에서의 마음(心)의 연구는 현재를 기준으로 단일 학문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을 가진다. 현재 감성과학은 인지심리학, 뇌공학, 정보공학, 산업공학, 인간공학, 디자인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각 학문 영역은 각 학문영역의 관점에서 감성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에서의 감성체계는 인지작용, 감성작용, 생리화학작용 등에 의한 구분에 의하여 마음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 유학에서의 감성규명 체계의 성격

유학에서의 인간의 심성의 규명은 심성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심성구조가 아니라 심성작용 및 내용을 규명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5.3 종합결론

유학의 깊은 이해 없이 일부의 자료로서 게다가 심성구조와 특성, 관점을 단편적으로 혹은 표면적으로 고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의도되었던 아니건 간에 건강부회(牽強附會)식의 연구로 빠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본 연구를 우리의 전통사상에서도 현대의 감성연구에 계승 발전시킬 체계와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유학에서의 심성 연구는 현재의 감성연구와 관점이나 접근방법, 영역이 다르기는 하나,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의 접근체계로는 매우 체계적이며 고도화된 연구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감성연구가 새로운 지향점을 찾고 접근할 수 있는 개념과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2001). 한국의 철학사상, 예문서원, 서울.
- [2] 금장태 (2002). 성학십도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 [3] 금장태 (2002). 한국유학의 심설,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 [4] 김영민 (2003). 한국인에 맞는 감성지향 디자인 기반연구, 국민대학교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논문, 54.
- [5] 이기동 (1991). 대학중용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서울.
- [6] 이기동 (1992). 맹자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서울.
- [7] 지두환 (2002). 한국사상사, 역사문화, 서울.
- [8] 풍우관, 박성규 역 (2003). 중국철학사(상), 까치글방, 서울.
- [9] 한국사상연구회 (2000). 도설로 보는 한국 유학, 예문서원, 서울.
- [10] 한국사상사연구회 (2002).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서울.

원고접수 2005. 7. 11

수정접수 2005. 8. 1

게재확정 2005. 8. 2